■ Sun-224 ■

반복되는 대량 객혈 환자에서 변형혈관에 대한 흉강경 폐구역 절제술 증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박혜원, 이진국

서론: 대량객혈은 성대이하 부위의 기도에서 기원하는 혈담이나 혈액 배출이 24시간에 걸쳐 100-600mL이상일 경우로 정의되며 80%이상에서 기관지 동맥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대량객혈의 치료법으로는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지혈, 동맥조영술 및 색전술 등이 있으며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객 혈에서 외과적 수술이 고려된다. 고찰: 본 증례는 기관지 내시경 지혈술, 기관지동맥 색전술에 반응하지 않은 반복적 객혈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외과적 수술로 객혈이 해소된 사례이다. 증례 환자의 경우 해결되지 않는 대량 객혈이 반복되다 기관지 내시경상 객혈의 원인이 되는 기관지동맥이 육안으로 발견되어 외과적 수술이 가능했던 경우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객혈 환자에서 출혈의 원인 혈관이 이후에 발견되어 치료가 가능해진 흔치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중례: 70세 COPD 남환, 3년간 5차례 반복되는 대량객혈로 기관지내시경 시행시 RML 출혈혼적 확인되어 기관지동맥 색전술로 우측 늑강동맥색전술 3차례 시행했던 환자로, 대량객혈 주소로 재내원하였다. 기관지 내시경상 RUL에서 혈관으로 보이는 병변 확인되어 우측 기관지동맥 변형혈관에 대해 기관지동맥색전술 시도하였으나 기시부위 확인 어려워 색전술 시행하지 않았으며 흉부외과 전과되어 흉강경 RUL 폐구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기관지 내시경 추적검사상 출혈소견없어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